



진안군, 청소년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진안군은 8일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명지킴이란 자살위험에 처한 주변인의 신호를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에 연계하는 사람을 말하며 지역사회 내 총출현 자살예방 인적 발굴망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은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교육 '보고, 듣고, 말하기'를 활용하여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적·행동적·상황적 3가지 신호와 자살 위험군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진안군은 오는 10월까지 관내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며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앞으로 청소년기 비슷한 성장 과정에 있는 주위 친구들의 자살 위험 신호를 파악해 조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활동에 앞장서게 된다. /진안=우태민 기자

진안 주천면민 위한 동아리 활동 '호응'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일환 추진... 손바느질·천연제품 만들기 등 다채롭게 진행

진안군 주천면은 8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위원장 김만춘)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이 주민들의 호응 속에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주천면 동아리는 강사와 동아리원 모두 주천면민으로 이뤄졌으며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체계적이며 역량이 있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중심지와 배후마을에 재능나눔 활동을 이어나가며 주천면민이 중심이 된 복지인프라를 구축에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평이다.

동아리는 달향(홈베이킹) 대바람소리(대금), 허브향기(천연제품 만들기), 손바느질, 재봉 등으로 이뤄져 주민들의 다양한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특히 손바느질 동아리는 교통수단 이용이 자유롭지 않은 교통약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배달부'로 운영하며 마을 곳곳을 찾아 소수만을 위한 활동이 아닌 다수의 주천면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들로 진행하고 있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김만춘 위원장은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 복지시각각대의 주민들은 물론, 다양한 계층들이 함께 소통하고 활동하는 주천면민의 문화·복지프로그램들이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남원소방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홍보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소방청에서 개최하는 소방청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소방청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부담과 불편함을 줄이고 소통의 힘을 높이기 위해 개최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주제는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등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참신한 규제혁신과 불합리한 행정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불편 경감 아이디어가 주제이다.

공모분야는 신산업, 기업부담 등 기업활동에 관한 분야와 국민불편, 지역현황 등 국민생활에 관한 개선사항 등 총 4개 분야로 오는 7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소방청 누리집·광화문 1번가·국민생각함 등에 게시된 양식을 다운받아 전자우편(changmining@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자원봉사센터, 재능나눔 자원봉사 활성화 업무협약

남원시자원봉사센터(위원장 김진석)는 8일, 초록나무협동조합(이사장 우혜진) 및 남원새로이마을협동조합(이사장 정성배)과 재능나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원시 관계지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과 은퇴자에게 취업과 연계한 전문 목공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생활공구 및 육아용품 대여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두 기관과의 업무협약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상호협력하고 지역 내 서비스자원 연계 활성화를 통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다채로운 자원봉사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공동추진하고, 남원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시행하는 우수 자원봉사프로그램과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나눔 프로그램 등 공모사업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김진석 운영위원장은 "이웃에게 봉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서비스를 개발해 지역사회의 공익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원주 운주면 지사협, 이웃 위한 반찬 나눔

원주군 운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웃을 위해 반찬을 나눔했다.

8일 운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운주면 행복플러스 반찬 나눔 행사'를 갖고, 직접 밑반찬을 조리해 50여 세대에 전달했다.

위원들은 오이장아찌, 열무김치, 멸치볶음 등을 만들어 밑반찬 조리가 힘든 독거노인, 장애인 등 50여 세대에 직접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또한, 이선재 공동위원장이라 면 50박스를 기증해 반찬과 함께 전달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장수소방서, 전북도 화재예방조례 준수 당부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오인출동을 방지하기 위한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대한 준수를 당부했다.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는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각행위자는 △신고자, 일시, 장소, 사유 등 확인 후 사전 신고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및 진압장비 배치 △의용소방대원, 마을이장 또는 산불감시원 등 입회 후 소각 △소각행위 후 완전소화 확인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 처리법 등 제한사항 준수해야 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경찰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나서

남원경찰서(서장 이동민)는 8일, 녹색어머니연합회 및 교통초 교직원, 학부모회, 어린이회 회원과 교통초 앞에서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기 위한 (보-이-고) 활동 및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어깨띠를 패용 하고 플래카드를 들며, 등굣길 학생들에게 교통홍보물품(부채, 포스트잇 등)을 배부하고, 운전자에게는 스쿨존 내 시속 30km/h 준수 및 불법주정차 금지, 어린이들에게는 서다·보다·걷다 등 보행자 3원칙을 홍보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Table with 4 columns: 전주지사, 중앙지사, 남원지사, 임실지사, and their respective phone numbers.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완주군 여성예비군, 봉등읍 환경정화 활동 나서

완주군 제35사단 전주·원주대대장(중령 권영준)과 여성예비군소대원(소대장 국수현)들이 봉등읍에서 대대적인 환경정화를 진행했다.

8일 완주군에 따르면 권영준 중령을 비롯한 여성예비군 30여명은 봉등읍의 천변과 읍소재지 일원에서 환경정화 대청소를 실시했다.

참여자들은 봉등천변 및 읍소재지 도로, 공한지 주변 쓰레기를 정리하고 주위 주민들에게 분리수거 및 쓰레기 분리배출 처리방법에 대한 홍보를 하는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환경정화를 전개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 시흥동 지사협, 취약계층 냉방용 선풍기 지원

김제시 시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최호길)는 8일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25세대에 냉방용 선풍기를 지원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고 폭염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 냉·난방 등 에너지복지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관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25세대에 냉방용 선풍기를 지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